

## 턱교정수술과 매복지치

김재승·장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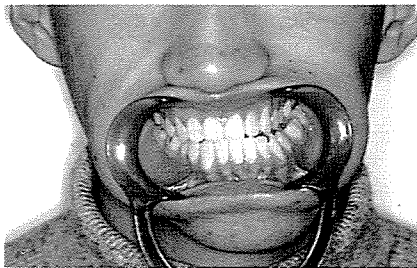
서울중앙병원치과

턱교정 수술이 계획된 환자에 있어서 수술전에 미리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악에서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는 상행지사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시행할 경우에 하악 제3대구치는 골절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술전 2-3개월전에 발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수술시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골절단이 잘못되는 bad splitting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매복되어 있는 경우 지치의 큰 치관이 협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골절단선이 너무 협측으로 치우쳐서 이 부분에 골절이 야기되거나 하악과두부가 원심부에 포함될 수 있으

단선(Bone incision)에 매복된 지치를 포함시켜 같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골절절단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상분할(sagittal splitting)할때 설측 골판의 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악하연에서 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므로 하악에서 S. S. R. O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악 제3대구치를 수술전 2-3개월전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술시에 발치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골절단선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증례는 Asymmetrical Mandibular Prognathism으로 S. S. R. O와 genioplasty, 그리고 매복된 제3대구치를 제거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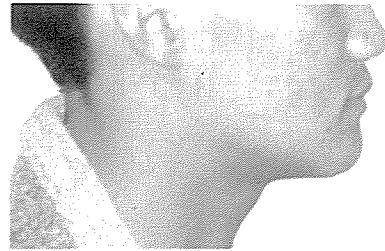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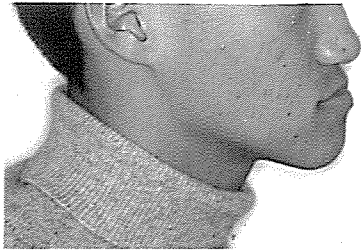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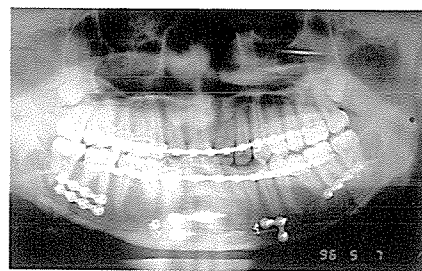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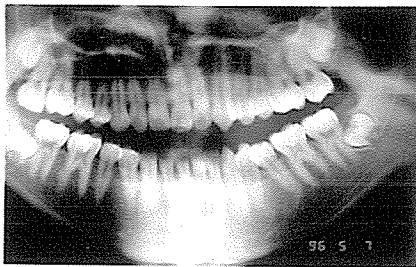


B

그림 1. 수술전후 정면 모습. 수술후 대칭적 인모로 개선되었다.



A B  
그림 2. 수술전후 측면 모습. 수술후 정상적 측모로 개선되었다.



A B  
그림 3. 수술전후 방사선 사진.



A B  
그림 4. 좌우측 제3대구치를 분리한 모습.